



3월 동향

- 02 제62차 집행부회의 / 신입조합원 상견례
- 03 제12차 학추위 (학생정당성과추진위원회) 참석
- 04 학원정상화 천막 농성 전개
- 04 제63차 집행부회의
- 07 제64차 집행부회의
- 08 학원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 12 서울 정부중앙청사 1인 시위 시작
- 16 제13차 학추위 참석
- 17 학원정상화 상경투쟁
- 18 제14차 학추위 참석
- 21 학원정상화 피켓시위 시작
- 21 제65차 집행부회의
- 23 제56차 임시총회
- 24 서울 정부중앙청사 1인 시위 참여
- 29 제65차 집행부회의
- 31 제15차 학추위 참석

알림터

2011년 3/4월호 대학교육 (<http://magazine.kcue.or.kr/>)

- 특집
대학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작은 생각, 문형구(고려대)
SGS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문철우(성균관대)
대학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기여방안, 정은재 (경북외대)
일본 대학들의 활발한 지역 사회 공헌, 오대영(기천외대)
- 특별기획
2011 교육과학기술부고등교육 정책방향, 한석수(교육과학기술부)
- 대학행정현황
대학홍보가 곧 생존이다, 김현철(덕성여대)

- 대교협에 바란다
대학대교협의 자율성과 대교협의 새 역할, 김원진(서울대)
입학사정관제와 고등학교 교육, 구순희(여의도여고)
- 세미나 지상중계
2011년 정기총회 및 동계대학총장세미나, 김화영(대교협)
- 우수교육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건양, 건양대
인천대 U1글로벌 인재양성 유학생지원센터, 인천대
- 해외 고등교육
미국 온라인 교육 현황과 시사점, 김수경(대교협)

3·17
상경투쟁
동행기



1천 함성, 서울 하늘에 메아리치다~

3·17

학원 정상화를 위한 상경투쟁의 날

예년 같으면 봄기운으로 가득했을 3월이지만 일기 예보는 연일 꽃샘추위를 알리고 있다. 특히 서울은 영하에 머무른다는 기상캐스터의 말에 겨울 외투와 무릎담요, 장갑 등을 단단히 챙겼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5시. 자는동안 잠을 설치긴 했지만 새벽공기는 제법 상쾌하다. 오늘은 우리대학 학원 정상화가 사학법 정조정위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예고된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출한 우리의 정상화 안이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한 날이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투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다. 학원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결국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오늘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서 집회까지 이르렀다. 구재단의 전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앞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조차 못했던 만큼 그동안 학원 정상화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새벽, 많은 동료 선배들과 함께 버스에 오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경험하지 못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선배님들이 어렵게 이루여놓은 학원 민주화를 아무런 감성없이 누리고만 살아왔던 내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아주 작은 힘 하나를 보태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인 것이다.

250여명을 태운 버스는 약 4시간여를 달려 서울, 사분위 회의장소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도착했다. 이미 집회장소에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역시 지정된 장소에서 대오를 가다듬었다.

전현수 범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된 구호를 외치는 사이에 어느덧 참가자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대구에서, 서울에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달려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노조연맹 여러분의 연대발언이 이어지면서 학원 정상화를 바라는 열망은 더욱 고조되었다.

먼발치에서 깃발이 보이는가 싶더니 총학생회를 선두로 5백여 학생들이 차려차려 버스로 도착하고 역시 학원 정상화 투쟁을 진행 중인 덕성여대 250여 학생들이 가세하자 그야말로 발디달들이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구호와 몸짓들 등을 동원해 집회를 흥겹게 이끌어 갔고 자유연대 발언에서는 학원 정상화를 향한 열망을 거침없이 쏟아 놓는다.

대학시설 경험하지 못한 집회 현장과 이날 참가 학생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당당

한 의사표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들이 만들어갈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덧 예정된 오후 6시,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분위 회의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아쉬운 걸음을 옮긴다. 비록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모두들 후회 없이 버스에 올랐다.

대구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사분위 회의결과와 우리 대학 정상화 안전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의 정상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지만 적어도 우려스러웠던 구재단 복귀 결정은 오늘의 투쟁을 통해 일단 막아냈다는 기쁨에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온다.

오늘 상경투쟁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정상화를 열망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하면 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원 정상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도출된 우리의 방안으로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월 17일 하루는, 일상에서 때로 부딪히며 얼굴을 붉힐 때도 있었지만 단결된 우리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의 잠재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하루였다. 이날 참가한 분들과 멀리서 지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지면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진영 ■ 홍보부장

◆ 학원 정상화 피켓시위주 편성표 (4월)			
일자	성명	일자	성명
4.1 (금)	(조장)이성우	4.12 (화)	(조장)김종태
	박배홍		이종현
	조기호		최은규
	김찬우		최은화
	신성희		최은숙
4.4 (월)	(조장)이성우	4.13 (수)	(조장)이종화
	최은희		이종현
	최은숙		최은화
	최은희		최은숙
	최은숙		최은화
4.5 (화)	(조장)권오연	4.14 (목)	(조장)김종수
	김재연		김종현
	김재연		김종화
	김재연		김종숙
	김재연		김종화
4.6 (수)	(조장)이성우	4.15 (금)	(조장)이종화
	김찬우		이종현
	김찬우		최은규
	김찬우		최은화
	김찬우		최은숙

4월 17일 상경투쟁 일정			
일자	성명	일자	성명
04-01 (금)	이덕수	04-18 (월)	(조장)김종태
	최은희		이종현
	최은숙		최은화
	최은희		최은숙
	최은숙		최은화
04-02 (토)	김진화	04-19 (화)	(조장)이종화
	김진화		이종현
	김진화		최은화
	김진화		최은숙
	김진화		최은화
04-03 (일)	최은희	04-20 (수)	(조장)김종수
	최은숙		김종현
	최은희		김종화
	최은숙		김종숙
	최은화		김종화